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9호> 2019년 8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오이타현 외국인 종합상담센터 설치



오이타현은 지난 6월 27일, 외국인 및 외국인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 ‘오이타현 외국인 종합상담센터’를 오이타시에 설치했습니다.

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6천명을 넘어 5년동안 2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 실현이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현내 거주 외국인이 품고있는 의문과 불안함을 창구와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다언어 콜센터를 활용하여 17개 언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촌 창구에서 대응 가능한 직원용 연수를 실시할 예정

으로 오픈 기념식 첫 날부터 전문가를 불러 상담 대응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상담센터를 활용하여 현민과 거주 외국인이 함께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츠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분고타카다시에 이어 이번 호는 키츠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에도시대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하마을 키츠키

키츠키성을 중심으로 양쪽 고지대에 위치한 무가저택, 그 사이에는 상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있어 일본에서는 유일한 ‘샌드위치형 성하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가의 중요전통적건축물보존지구로 선정되어 시대극의 촬영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규슈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는 키츠키는 전통 의상이 잘 어울리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기모노 렌탈샵에서 빌린 기모노를 입고 마을을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역사적 거리’로 인정받아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프트 대상을 수상한 ‘온천 우나기’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니혼슈 콩쿨 Kura Master 2018에서 최우수인 프레지던트상을 수상한 ‘치에비진 준마이’ 등 키츠키의 브랜드 특산물도 많이 있으니, 키츠키에 오시면 꼭 맛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타 100% 즐기기! 농가 민박 카테노이에 (糧の家~kate no ie~)



키츠키시의 작은 마을 야마가에 위치한 ‘카테노 이에(糧の家~kate no ie~)’는 지어진지 80년이 넘는 민가에 살고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농가 민박입니다. 조금씩 집을 고치며 꾸며가고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를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며 머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선사해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만 같은 부엌 사진에 이끌려 찾아온 ‘카테노 이에’. 사진 속 부엌은 민박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창고였던 곳을 개조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조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조리대는 아내 히로미씨의 키에 맞춰 만든 남편 미라이씨의 작품으로 아내를 위한 배려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 부부의 센스가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소품을 잠시 구경하고있는 동안 어느새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있었습니다. 히로미씨는 그날그날 재료를 보고 무엇을 만들지 정하며 가족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각종 채소들,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요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소박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멋스러운 식기와 조명 등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기분으로 모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나자 가까이에 있는 온천까지 안내해주셨습니다. 야마가 온천은 독특한 향과 염분이 강한 성질을 띄는 것으로 유명하며 비가 내리는 노천탕의 운치에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도 TV도 없어 유일하게 들려오는 빗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니 시간이 느리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난 이 시간이 더 천천히 가길 바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떠보니 아직 이른 아침 시간. 창 밖을 내다보니 푸르른 산과 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만해도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며 오랜만에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가보자 히로미씨가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 앞 나무에서 직접 딴 무화과와 연어 등이 올라간 조식 플레이트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콩부터 직접 재배해 만들었다는 된장국은 몸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니 하루종일 든든한 기분이 드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세련된 멋이 느껴지는 ‘카테노 이에’에서의 하룻밤과 식사는 힐링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